

# 북미 원주민을 주님 품으로

북미원주민 선교사 이진호, 신해숙 기도편지

3031 4th Avenue. Port Alberni  
BC V9Y 2B8 CANADA

2017년 2월 5 일

2017-07호

통권 32호

(Tel)070-8264-8742 [H] 1-250-913-0937 (E-Mail) [gnm.mike@gmail.com](mailto:gnm.mike@gmail.com)

'북미원주민을 주님 품으로'는 북미원주민과 나아가 세계 모든 원주민을 향한 선교비전을 후원자들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이진호/신해숙(유빈, 다희, 찬영)가족이 고국과 캐나다에 계신 교회, 동역자 여러분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새해도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BC주는 전에 없는 추위와 폭설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은 별고가 없으신요? 이번 설은 연휴가 짧아서 많이들 바쁘셨다고 하는데 모쪼록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악천후에 염려를 담아 기도와 안부를 물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포트 알버니에 소식을 전합니다.

##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사역 소개



지난해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 주신 여러 교회와 개인, 단체 등에서 기증해 주신 물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와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동역자 여러분과 교회에 감사의 전합니다. 계획대로 라면 여기 여러분의 기증품들이 지난 12월에 주인을 찾아야 이미 없는 물건이겠지만 갑작스러운 고국의 아버지 낙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급히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증품들이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중에 기증품들의 정리를 마치고 3월 중에 여러 차례 가라지 세일(Garage sale)을 통해서 물건들을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아예 공식적으로 Thrift Store를 저희 선교회의 사업을 추진할까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구세군(Salvation Army)이 성공한 구제사업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여 부족한 선교비도 충당하고 원주민 교육등 다각적인 구제사업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를 맡아주실 이사진(Directors-Boarder Member)과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들을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공급처도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수입이 줄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가 결국 지역시장의 경기둔화로 이어졌고 이에, 필요한 지역민들이 재화를 상당 부분 재활용 기관(Second hand store)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기간사용물건(아이들 차량 안전장치, 가구류 특히 의류)을 이곳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원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저희들과 접촉을 통해 친분을 쌓아 선교의 결실이 결국 예배로 이어지리라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현안들을 같이 해결하고 개척할 분들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분들을 추천도 해주시 자원해도 해주시는 등 더 많은 관심과 도움, 기도를 당부 드립니다.

## 요벨 펠로우십 센터(Yobel Fellowship Centre)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전에 관하여** : 저희는 당초 주일 예배를 11시에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제가 던컨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원주민들도 동일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역에 동역하므로 처음 던컨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상황을 알지 못해서 예배 시간 설정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저와 교재를 갖고 있는 원주민

들을 통해 들은 바는 많은 원주민들이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들이 늦게 끝나고 주일 아침에 휴일의 늦잠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오전 11시 예배가 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3,4월 중) 예배시간을 오후 5시로 옮기는 방안을 다른 사역들과의 연관성해서 심도 있게 연구 중입니다.

**어린이 사역의 확대** : 그간의 어린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민 어린이 사역을 확대하여 실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학교를 주일 예배 중에 별개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안

- Kids Bible School

1) 정기적인 주중 프로그램으로 설정

2) 기간제 프로그램으로 설정

예) 4월 2-4일 태권도 교실

악기 강습

축구(스포츠) 교실

- After School Classes

1) 독서지도

2) 과제물 지도

3) Baby care

이외에 이외에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하였던 여름 사역을 더욱 확대하여 지난해 2개 부족까지 확대한 여름 사역을 이번에는 3개 부족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리저브 교육담당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 계속 해서 비협조적이던 Tseshaht 산하 교육부서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관계를 쌓고 있어서 7월중 VBS 지역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문화 사업** : 포트 알버니에는 국제 결혼과 이민등의 이유로 시리아 난민을 비롯하여 중국, 이탈리아, 베트남, 인도, 한국등의 이주민들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을 센터로 초대하여 월중1회, 각문화권의 음식과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한 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모임 장소로 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에 다민족들을 선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합니다. 이 사업의 사업을 타진하기 위하여 각 커뮤니티의 대표들을 만나서 상의하고 이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상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경영하는데는 협력하는 교회들과 개인분들의 기도와 더 큰 관심이 절실합니다. 올 해도 더욱 큰힘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포트 알버니 지역에 리저브(Nuu-chah-nulth, Hupacasath)내에 교회 개척

2. 어린이 사역

Sunday School (3월 내 시작 예정)

Kids Bible School (3월 내 시작 예정)

Vacation Bible School등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협력하는 교회들과 개인, 단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3. 공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고 정기적인 후원과 협력인들을 속히 붙여 주시옵소서.

4. 예배가 더욱 활성화 되게 해주시옵소서

5. 9월 중에 시작될 다문화 사역에도 포트 알버니 지역 내에 다문화의 개인, 단체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정기 모임이 선교로 이어 질 수 있도록

6. 한국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빠른 쾌유와( 왼쪽 고관절 골절-연로 하셔서 수술 불가, 선명증 치료)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7. 첫째 유빈이가 9월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